

제9호 | 2015.5.6

가공농산물(주스류) 수입 동향 및 시사점



FT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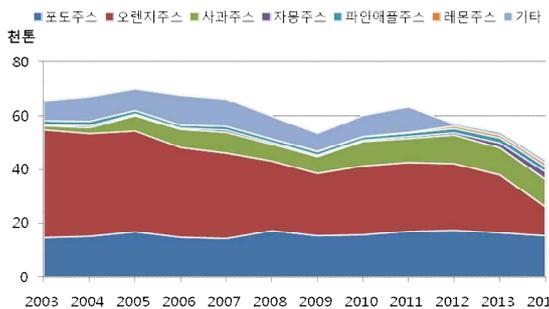
가공농산물(주스류) 수입 동향 및 시사점

□ 전체 주스류 수입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,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증가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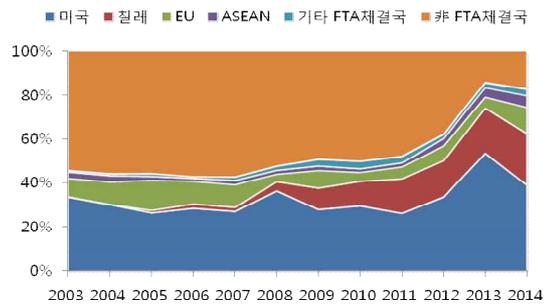
- 사과주스, 파인애플주스, 레몬주스 등의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오렌지주스 수입 감소로 전체 주스류 수입량은 줄어들었음.
 - 2014년 미국산 오렌지의 작황부진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온 오렌지주스 수입량이 전년 대비 62.3% 감소함에 따라 전체 주스류 수입량은 19.5% 감소
 - 수입 주스류 가운데 포도주스(35.0%) 수입량이 오렌지주스(25.6%)를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, 그 다음이 사과주스(23.2%), 자몽주스(6.6%), 파인애플주스(4.3%), 레몬주스(2.8%) 순으로 나타남.

- 전체 주스류 수입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비중은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, 전반적으로는 상승 추세임.
 - 2014년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주스류 수입량 비중은 미국산 오렌지주스 수입 급감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.0%p 하락한 82.9% 기록
 - FTA 체결국 중에서 미국(38.9%)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칠레(23.5%), EU(11.8%), ASEAN(5.7%) 순임

〈 주요 주스류 수입 동향 〉



〈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주스류 수입량 비중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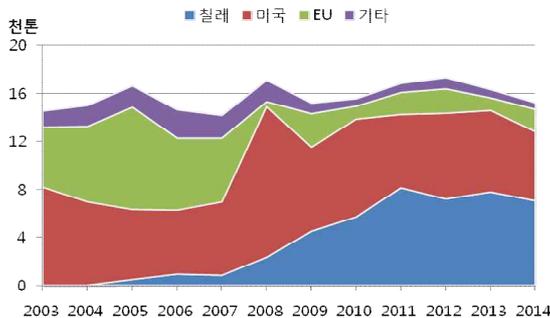


□ 포도주스와 오렌지주스 수입 추이에서는 수입 전환효과, 사과주스와 파인애플주스는 수입 증가와 수입 전환효과, 자몽주스와 레몬주스는 수입 급증 등의 특징이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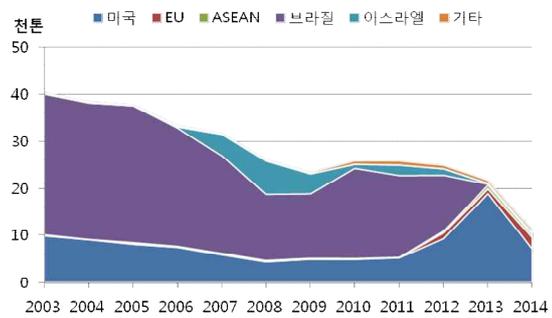
- 2014년 포도주스 수입량은 1만 5천 톤으로 한·칠레 FTA 발효(2004년) 이후 소폭(1.5%) 증가한 가운데, 주요 수입선은 미국, EU(스페인, 이탈리아), 아르헨티나, 브라질 등에서 칠레로 전환
 - 2004년 한·칠레 FTA 발효를 기점으로 칠레산 포도주스 수입이 급증했고, 2011년 이후 연평균 수입량은 7천 톤 이상을 기록
 - 2014년 칠레산, 미국산, EU산 포도주스 수입량 비중은 각각 46.4%, 37.9%, 12.1%임

- 오렌지주스 수입량은 200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냄. 특히 2014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큰 폭(-48.7%)으로 감소한 1만 1천 톤이었으며, 주요 수입선은 브라질, 이스라엘에서 미국, EU(그리스, 스페인)로 전환
 - 수입 오렌지주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브라질산과 이스라엘산은 2013년부터 소량 수입되고 있으며, 2011년 한-EU FTA, 2012년 한-미 FTA 발효를 계기로 EU산과 미국산 비중은 상승함
 - 2014년 냉해와 병해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미국산 수입량이 전년 대비 62.3% 감소

〈포도주스 수입 동향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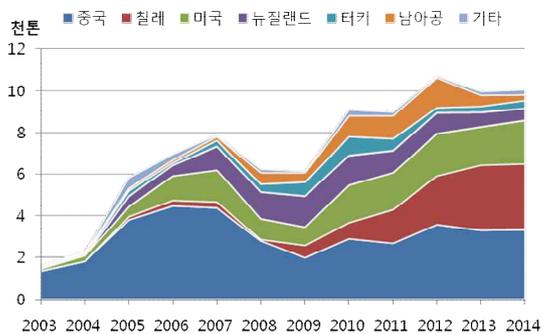


〈오렌지주스 수입 동향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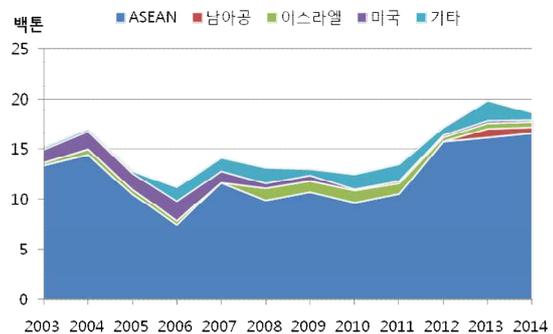


- 사과주스 수입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, 최근 칠레산과 미국산 수입량은 증가 추세인 반면, 중국산, 뉴질랜드산, 터키산, 남아공산은 감소 추세
 -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칠레산 사과주스의 2014년 수입량은 약 3천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33.1%를 차지하며, 뉴질랜드산, 터키산, 남아공산은 각각 5.4%, 3.9%, 2.9%에 불과
- 최근 파인애플주스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, 미국산과 이스라엘산 수입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, ASEAN산과 남아공산은 증가
 - 2014년 수입 파인애플주스 가운데 ASEAN(태국, 필리핀, 베트남)산이 88.7%로 대부분을 차지하고, 남아공산, 이스라엘산, 미국산이 각각 3.2%, 2.8%, 1.2% 차지

〈사과주스 수입 동향〉



〈파인애플주스 수입 동향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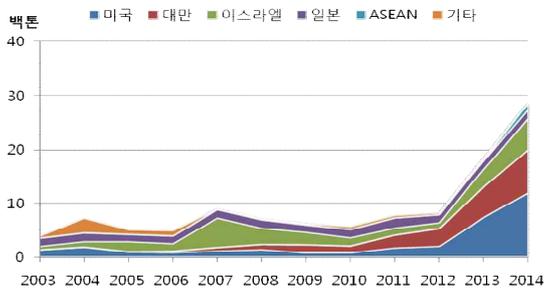


- 최근 국내 자몽 소비 증가와 더불어 자몽주스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주로 미국, 대만, 이스라엘 등에서 수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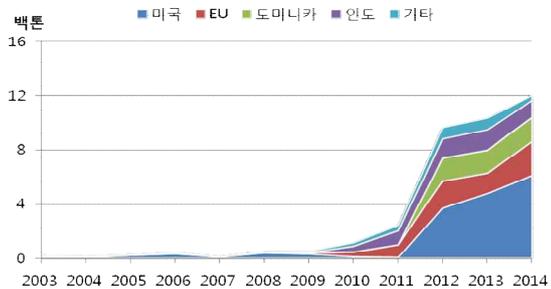
- 2014년 전체 자몽주스 수입량 중 미국산, 대만산, 이스라엘산의 비중은 각각 41.5%, 28.1%, 19.9%이고, 일본과 ASEAN에서도 소량 수입
- 2010년까지도 이스라엘산과 일본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, 최근 미국과 대만에서 주로 수입

- 2009년까지도 레몬주스 수입량은 소량에 불과했으나, 이후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 급증
 - 2011년 한-EU FTA 발효를 계기로 EU산 레몬주스 수입량이 증가하기 시작했고, 2012년 한-미 FTA 발효를 계기로 미국산 수입량이 증가하기 시작
 - 2014년 전체 레몬주스 수입량 중 미국산(51.0%)의 비중이 가장 크고, 그 다음이 EU산(20.5%), 도미니카산(14.9%), 인도산(10.6%) 순임

〈자몽주스 수입 동향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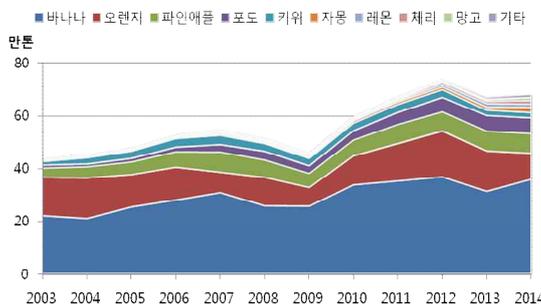
〈레몬주스 수입 동향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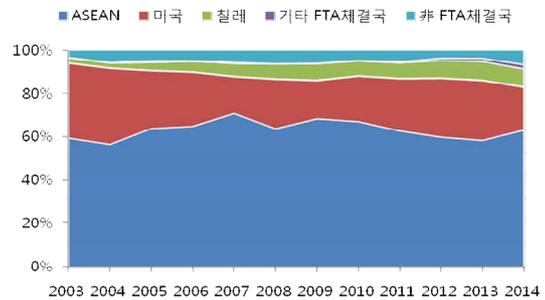
□ 수입 주스류에 비해 수입 신선과일은 그 품목이 다양하고, 수입대상국은 일부 FTA 체결국에 집중됨

- 오렌지, 파인애플, 포도, 자몽, 레몬은 주스 외에 신선 형태로도 많이 수입됨
 - 2014년 기준, 수입 신선과일 가운데 바나나(52.8%)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, 오렌지, 파인애플, 포도, 자몽, 레몬이 각각 14.5%, 11.1%, 8.7%, 2.9%, 2.0% 차지
- 주스류와 마찬가지로 신선과일도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
 - ASEAN(63.2%), 미국(19.7%), 칠레(8.2%)를 포함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신선 과일 수입량 비중은 93.3%에 달함
 - 바나나·파인애플·망고는 ASEAN, 오렌지·자몽·레몬·체리는 미국, 포도·키위는 칠레 등에서 주로 수입

〈주요 신선과일 수입 동향〉



〈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신선과일 수입량 비중〉



□ 최근 주스류 전체 수입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, 소비패턴 다양화로 자몽주스, 레몬주스 등 일부 주스류 수입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며, 국내 착즙시장이 확대되면서 착즙용 신선과일 수입이 증가할 전망

- FTA 이행에 따라 포도주스, 오렌지주스, 사과주스 등 주요 수입 주스류에 대한 관세 인하폭이 확대되었으나 주스류 전체 수입량은 오히려 감소 추세
- 다만, 최근 자몽, 레몬, 망고, 석류 등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신선과일을 비롯한 주스류와 기타 가공품의 수입은 증가 추세
- 국내 소비자의 과일 소비패턴 다양화와 착즙시장 성장 및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폭 확대로 외국산 과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, 이로 인해 국내 과일·과채 산업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.
 - 따라서 국산 신선과일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, 소비자 수요에 기초한 기능성/건강음료 등의 가공품 개발 및 소비 촉진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할 필요

〈주요 수입 주스류의 양허 내용〉

품목	기준 관세율	국가	양허 내용	철폐 시점	품목	기준 관세율	국가	양허 내용	철폐 시점
포도 주스	45%	칠레	7년 철폐	2011년	사과 주스	45%	칠레	10년 철폐	2014년
		미국	즉시 철폐	2012년			미국	7년/10년 철폐	2019년/2022년
		EU	즉시 철폐	2011년	파인애플 주스	50%	ASEAN	2016년부터 40%/ 2012년부터 20%, 2016년부터 5%	
오렌지 주스	54%	미국	즉시/4년 철폐	2012년/ 2016년	레몬 주스	50%	미국	4년 철폐	2016년
		EU	3년/5년 철폐	2013년/ 2015년			EU	5년 철폐	2015년
자몽 주스	30%	미국	10년 철폐	2022년			인도	양허 제외	

주: 포도주스(2009610000/2009690000), 오렌지주스(2009110000/2009120000), 사과주스(2009790000/2009710000), 자몽주스(2009210000/2009290000), 레몬주스(2009311000/2009312000), 파인애플주스(2009410000/2009490000)는 모두 2개의 HS코드 포함.

자료: 해당 FTA 협정문.

〈참고문헌〉

국별 FTA 협정문.

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(www.gtis.com/gta).

작성자 : 지성태 부연구위원, 이현근 전문연구원
 감 수 : 박준기 연구위원